『BOK경제연구』 2022-9호 요약

2022년 4월 19일(화)

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: 북중 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

이 종 민 (북 한 경 제 연 구 실), 김 민 정 (북 한 경 제 연 구 실))

(연구 배경)

□ 거시경제의 실상과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다양한 물가지수가 필수적이나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

ㅇ 수출입단가지수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의 여건에서 관측된 무역 자료로 산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
□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자료*를 사용하여 북한의 수출입단가지수**를 추정

*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6년 56.7% → 2010년 83.0% → 2019년 95.4%

** 수출입단가지수는 통관품목별 수출입 단가(=금액/물량)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일관된 품질 규격 설정 하에 기업서베이를 통해 산출되는 수출입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으나, 대부분의 개도국(97.9%)에서 수출입단가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의 대용 변수로 사용

ㅇ 또한 작성된 지수에 기반하여 북한의 수출입을 물량요인과 가격요인으로 분해하고 교역조건의 변화를 분석

(연구 방법)

□ 2006~2017년* 중 북중 간 거래된 HS 8자리 품목별 거래단가를 바탕으로 연쇄라스파이레스 산식에 기반하여 수출단가지수 및 수입단가지수 산출

* 대중무역이 북한의 전체 무역을 대표할 수 있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한정, 2018년 이후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품목 구성 변동이 심하여 제외

ㅇ 거래 빈도의 연속성, 거래액의 상당성, 규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선별*

* 연간 수출은 88~134개, 수입은 428~669개 품목 대상

문의처: 북한경제연구실 이종민 부연구위원 (☎ 5411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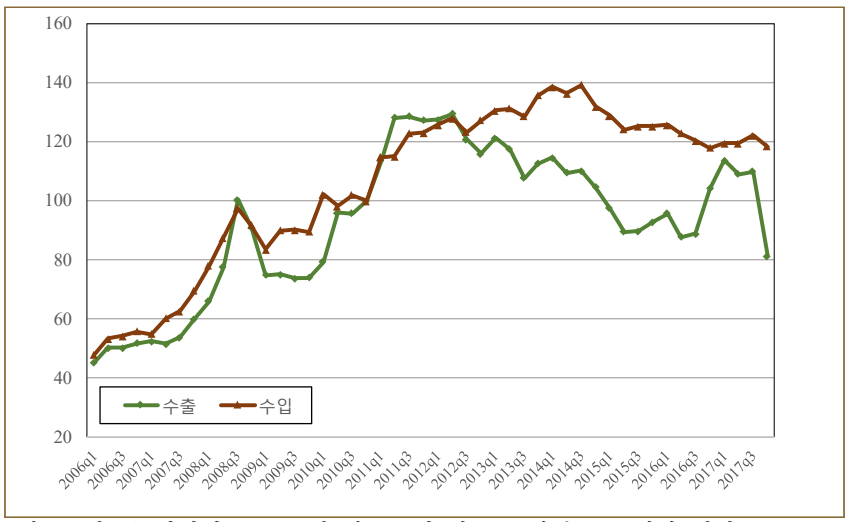
(연구 결과)

□ 수출단가지수는 2012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, 수입단가지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함

○ 수출의 경우 광물 등 1차 산품의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*을 받았으며, 수출단가지수가 수입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

* 기간 중 북한의 수출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, 전체 수출단가지수가 국제 석탄가격 지수와 높은 동조성을 나타냄

북한의 수출입 단가지수 추이 (2006-2017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의 북중무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시산

□ 수출입 변동을 물량 및 가격요인으로 분해해 보면, 2006~2016년중 대중 수출액의 증가는 대부분 물량 증가로 설명되는 반면, 대중 수입액의 증가는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의 기여도가 유사

○ 수입 물량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해 2010년대 초반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2010년대 들어 대중 수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것임을 시사

북한의 대중수입 증가율의 분해 (2006-2016)

단위 : %

Panel B: 수입	Δ_{2006}^{2016}	Δ_{2006}^{2010}	Δ_{2010}^{2013}	Δ_{2013}^{2016}
금액 증가율	10.0	16.6	16.9	−4.2
가격 증가율	4.7	11.4	6.3	−5.1
	[47.8]	[70.2]	[39.0]	[122.5]
물량 증가율	5.1	4.7	10.0	1.0
	[52.2]	[29.8]	[61.0]	[−22.5]

□ 대중 수출입의 교역조건은 2006~2011년중 대체로 개선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

○ 2012년 이후 교역조건 악화는 북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의 국제 가격이 하락한데다가 동종 품목 내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 가격이 타국 대비 낮아진 데 주로 기인

○ 또한 2012년 이후 실질무역손익이 꾸준히 감소*하였는데, 이는 이 시기 대중무역이 급증하였음에도 북한의 국내총소득은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을 것임을 시사

* 실질국내총소득은 실질GDP와 실질무역손익의 합이므로, 실질무역손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면, GDP 성장률에 비해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낮게 나타남

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 실질무역 손익 추이 (2007-2016)

(단위 : 백만 달러, 기준년도 : 2010)

	2007	2008	2009	2010	2011
순상품교역조건 (2010=100)	96.4	105.7	90.1	100	112.5
실질무역손익	−50.6	79.5	−158.0	0.0	273.6
실질무역손익 증감	0.8	130.2	−237.5	158.0	273.6
	2012	2013	2014	2015	2016
순상품교역조건 (2010=100)	109.2	98.0	92.8	88.4	89.3
실질무역손익	216.3	−54.9	−201.7	−326.1	−339.6
실질무역손익 증감	−57.4	−271.2	−146.8	−124.4	−13.6